

# 화단 및 조경용 패랭이꽃류 재배기술

Propagation and Cultivation of *Dianthus* spp. Used for  
Bedding and Landscape Plant.



송정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과명 : 석죽과(Caryophyllaceae)
- ▶ 학명 : *Dianthus* spp.
- ▶ 일명 : からなでしこ(패랭이꽃)
- ▶ 분류 : 다년초



▲ 패랭이꽃



▲ 술패랭이꽃

패랭이꽃, 술패랭이꽃, 갯패랭이꽃 등 패랭이꽃류는 아직은 전국의 산야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생화 중의 하나이다. 패랭이꽃류는 다른 말로 石竹, 大蘭이라고도 하며, 영명은

Carnation 또는 Pink이다. 지구상에 약 300종 정도가 분포하는데 주요 분포지역은 유럽 동남부, 아시아 북부, 북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이션 품종의 조상으로 수천 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꽃이 크고 모양이 좋아 화

단용으로 적합하며, 술파랭이꽃은 꽃에 향기도 있어 화단은 물론 절화용으로도 우수하다.

## 1. 종류 및 생리생태

페랭이꽃류는 우리나라에 총 5종이 자생하고 있다. 키가 약 30cm 정도 되며 꽃잎 끝이 서로 붙어있는 페랭이꽃, 바닷가에서 자생하며 작은 꽃들이 끝에 모여 피는 갯페랭이꽃, 꽃은 외대로 나오지만 키가 작은 난장이페랭이꽃, 요즘 도로변에도 흔히 쓰이고 있는 술페랭이꽃(왜성종이 많이 이용), 백두산에 자생하며 꽃술이 많이 날리는 구름페랭이꽃 등이다. 페랭이꽃류는 현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곧 신품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페랭이꽃류는 추위나 건조에 강하며 생육적온은 15~20°C로 비교적 중저온에서 잘 자라며 한여름 고온에는 약한 편이다. 페랭이꽃이나 술페랭이꽃은 가을에 씨앗을 뿌리면 이듬해 여름에 개화되므로 추파일년생 식물로 취급하기도 한다. 페랭이꽃은 5~8월에 걸쳐 분홍 또는 진분홍으로 피며, 키는 30cm내외, 잎은 좁고 길게 서로 마주나며 종자는 9월에 여문다. 관상용으로는 화단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들 중 술페랭이꽃은 절화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 2. 번식 및 재배

폐행이꽃의 번식은 종자 및 영양번식 모두 가능하지만 추파일년생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파종시기는 7~8월 종자 성숙 후 이듬해 봄까지 언제든

지 가능하며 성숙한 종자의 휴면성은 종에 따라 달라 슬페랭이는 약간의 휴면성을 갖고 있으나 별다른 처리 없이도 발아율이 50% 이상이며, 약간의 저온처리를 해주면 80% 이상 발아한다. 종자는 10ml당 패랭이꽃이 7,000립으로 야생화 중 비교적 중대립에 속하며, 파종 후 온도를 20°C 정도를 유지해 주면 5-6일 지나서 떡잎이 나온다. 도로변에 직접 파종할 수도 있지만 직파하면 출현율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육묘후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종기를 달리하여 재배양식별로 출현율과 개화특성을 조사한 결과(표 1), 파종시기에 관계없이 90% 이상 개화되었으며, 파종을 빨리 할수록 기본 영양생장량이 많아지면서 꽂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용으로 묘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러그 육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플러그 육묘  
는 채소묘나 초화묘에서는 일반화된 방법으로 작  
은 면적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연중 계획생  
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자번식성 화훼작물에서  
는 일반화된 방법이다. 충실종자를 골라 프리그  
트레이(육묘용 트레이로 셀수가 32공부터 488공  
까지 다양, 육묘기간 또는 화종에 따라 적당한  
셀수의 트레이를 이용)에 파종하여 육묘한다. 술  
페랭이꽃의 플러그묘 생산에 적합한 육묘기간이  
나 트레이셀수는 이용목적이나 출하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경용은 육묘후 바로 노지에 식재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륨이 있으면서 견실해야  
하지만 화분용은 다시 작은 용기나 풋트에 이  
식해서 키운 다음 최종적으로 판매할 화분에 옮  
겨 재배하기 때문에 본엽이 4-6매 정도 되고 묘  
를 뽑았을 때 뿌리가 밑 부분을 약간 싸고도는  
정도면 된다. 따라서 조경용으로는 셀 수가 적은

〈표 1〉 술패랭이꽃 피종시기 및 재배양식별 개화특성 ('89, 강원도농업기술원)

파종시기	재배양식	출현율(%)	초장(cm)	개화기간	개화주율	주당꽃수
4월상순	이식재배	42.0	65.6	8중~11중	94.7	35.8
	직파재배	41.0	60.2	9중~11하	96.0	10.2
6월상순	이식재배	2.0	63.6	10상~11하	96.3	24.6
	직파재배	6.3	30.4	10중~11하	94.0	7.0

〈표 2〉 술패랭이꽃(왜성종) 육묘기간별 묘 생육특성 ('99 원예연구소)

육묘기간 (주)	초장 (cm)	엽수 (ea)	절간장 (cm)	엽면적 (㎠/주)	생체중 (g/주)	건물을 (%)	묘의 충실도
5	3.4	9.8	0.4	8.9	2.3	13.3	0.9
7	4.0	13.0	0.5	10.6	3.9	17.6	1.7
9	3.8	15.4	1.0	10.2	4.5	19.9	2.4
11	3.9	22.1	1.5	14.7	8.2	17.2	3.5
13	4.3	23.5	1.6	13.7	10.6	19.2	4.7

\* 파종 : '99. 8. 12(99년산 종자 이용), 플러그(72공) 파종

〈그림 1〉 술패랭이꽃의 적심횟수별 개화기 변화 ('87, 제주도농업기술원)

적심횟수	개화 소요일수	개화기				개화기간 (일)
		8월	9월	10월	11월	
무적심	57	[ ]				30
1회적심	80		[ ]			43
2회적심	114			[ ]		45
3회적심	135				[ ]	47

\* 파종 3. 5, 정식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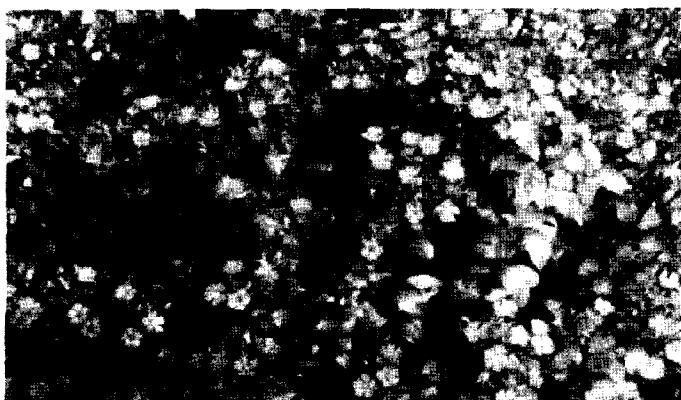
\* 적심 : 1회 7. 5, 2회 7. 5, 8. 27, 3회 7. 5, 8. 27, 9. 17

128공 이하의 트레이에 파종하여 육묘기간을 최소한 11주 이상으로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화용은 셀 수가 많은 162공 이상의 트레이에 파종하여 7주 내외동안 육묘하여 이식하는 것이 좋다. 표 2는 술패랭이꽃의 육묘기간에 따른 묘의 제반 특성이다.

육묘할 때 중요한 것 또 하나가 관수이다. 일반 상자에 파종하여 풋트에 옮겨심어 육묘하는

경우에는 호스 등 손 관수에 의존해야 하지만, 플러그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때는 손으로 주는 표면관수는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플러그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려면 물관리도 저연관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행사나 이벤트 등을 위해 특정시기에 맞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개화기 조절이 필요하다. 패랭이꽃류의 개화기 조절은 표 1에서처럼 파종시기를 달리하거나 그림 1과 같이 적심(지상부 절단)에 의해 가능하다. 즉 개화기(실험한 묘의 40%가 꽃핀 날)는 적심하지 않으면 8월 12일이지만, 한번 적심해 주면 9월 10일, 두번 적심해 주면 10월 8일, 세번 적심해 주면 10월 29일로써, 적심에 의해서도 개화기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어 실용적으로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갯패랭이꽃 만개광경